

대한민국-몽골 공동 발굴조사(2025년도) 후흐 출로트 유적(1차)

1. 조 사 명 : 몽골 문화유적 학술조사연구 [후흐 출로트 유적_Khukh chuluut]
2. 조사지역 : 몽골 북부 셀렝게 아이막 유루 솜
(울란바타르에서 약 350km / 좌표 : N49.92080 E106.78698)
3. 조사기간 : 2025. 06. 01.~ 06. 30(30일간)
4. 참여기관 : 몽골측 참여기관 :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
한국측 참여기관 : 마한문화연구원, 가경고고학연구소, 세종문화유산재단,
중앙문화유산연구원

5. 유적 현황

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북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유적지에는 흉노 또는 선비 시대로 추정되는 대형 봉토분 약 14기가 분포하고 있다. 이 지역에 대한 최초 조사는 1995년 러시아 고고학 조사팀에 의해 실시되었으며, 당시 발굴 결과는 해당 무덤들이 흉노 무덤으로 밝혀졌다. 그러나 이 지역은 흉노와 선비의 무덤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, 이번 발굴을 통해 무덤 문화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고자 한다. 조사 대상 무덤의 규모는 대형 봉토분의 경우 직경 약 14m, 높이 2m이며, 중형은 직경 10m, 소형은 직경 5m에 이른다.



[사진 1] 유적 위치



[사진 2] 유적 전경



[사진 3] 유적 항공 사진



[사진 4] 무덤 봉토



[사진 5] 일부 무덤 봉토 위에서 확인되는 적석